

2026년 도 제 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수 형 위 원(의장직무대행)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김 진 일 위 원

4. 결석위원 신 현 송 의 장(총재)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사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장 정 수	부총재보
	김 제 현	부총재보	이 지 호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동 렬	조사국장
	임 광 규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정 희 섭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조 용 범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권 도 근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5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와 제64조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신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7월 2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그간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부문 간 격차, 정책변수 간 상충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를 위해 경제 상황 및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운용되어 온 준재정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신설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시행 이전에 외부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에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 및 신규 프로그램 신설에 동의하면서, 개편과 관련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유의하고 세부 시행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금번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이 그간의 준재정적 성격을 줄이고 통화정책 신용경로 확충을 통해 정책 파급효과를 강화함으로써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그간 통화정책 컨퍼런스(conference),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본적인 개편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해왔으며, 금번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도 경제주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도 총액의 최적 수준 산정 및 배분 방식, 적용 금리 수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방안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신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내년으로 예정된 시행시기 전까지 금융기관 및 유관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그간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주요국 사례, 공동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생략)